

# 전남 농업인 월급제 신청 저조...개선안 마련

### 6000여 농가중 2000 농가 신청 8일 신청 농가에 29억원 지급 첫 월급 지급후 문제점 파악 보완

이달부터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가 전남지역 농가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농업인 월급제 홍보와 제도 시행에 따른 개선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대상 6000여 농가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2000여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농가 중

33% 가량으로, 10농가 가운데 3농가 정도만이 신청한 셈이다. 하지만, 벼 재배 농가는 영농이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 농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중순부터 나누시 등 전남 16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해당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말까지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이달부터 월급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지난달까지 신청한 농가에게 29억원의 월급을 오는 8일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금액을 매달 나눠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월급제를 희망하는 전남 16개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매월 30만~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품목별로 벼 4100㎡, 감 1300㎡, 양파 1000㎡, 배 800㎡, 포도 780㎡, 마늘 660㎡, 딸기 660㎡, 사과 580㎡ 등 기준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며, 미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다.

전남도는 대상 6000여 농가 중 현재 33%가량만이 신청한 만큼 다수 농가가 농

업인 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시책인 만큼, 첫 월급을 지급한 이후 나타난 문제를 파악해 보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은 결과 목표 농가의 30% 밖에 되지 않지만, 배, 포도, 사과, 딸기 등 품목은 재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신청이 더디고 벼 재배농가도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목표량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면서 "도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천터미널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이용섭 시장 '현장 경청의 날' 행사서 "보행 편의 즉시 지원"

광주 광천버스터미널 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광주시는 4일 서구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송갑석 국회의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현장 경청의 날'을 진행했다.

이날 이용섭 시장은 시민권익위원들과 함께 광천터미널 지하보도와 버스정류장을 직접 살펴보고 불편사항을 들었다.

광천버스터미널은 지난 1992년 조성된 광주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거점이다. 하지만 건너편 도로와 연결된 길이 76m

, 폭 7m 규모의 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서 시민들은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설치, 주 보행공간 정비 등을 광주시에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직접 지하보도를 이용해 보니 시민들의 불편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지하보도를 통해 광천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엘리베이터 2대와 경사로 및 보행공간 설치를 즉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 순천시·완도군 선정...국비 6억원씩 확보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순천시와 완도군 2개 지자체가 공모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59개 지자체가 신청해 4대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선호도가 높은 공모사업으로, 전국 15개소가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12억원의 사업비 중 6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순천시는 전남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로 안전한 도시 조성 내용을 부가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완도군은 265개의 섬으로 구성된 해양도시로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방범·방재·교통 등 개별서비스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서비스를 보급한다. 이 가운데 아동과 치매환

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와 사진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받아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전남에 반드시 필요한 스마트 기술로 꼽힌다.

전남도는 '공모사업 지원팀'을 지난해 8월 신설하고, 중앙 공모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해왔다. 특히 전남이 고령화로 사회적 약자가 많은 점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한 결과 2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윤진호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이 기대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 도민의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모기 유충 구제 방역 4일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방역반원들이 문흥동의 주택가 어린이공원 정화조에서 모기퇴치와 각종 감염병예방을 위해 모기 유충구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20곳 확충·41개 보육사업 추진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박차

광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광주시는 4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려 수용률을 높이고, 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정부 미지원 시설에 대한 차액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광주시정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 3월부터 애초 정원을 84명에

서 128명으로 44명 늘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용섭 시장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다녀온 직원들과 가진 '희망 토크쇼'에서 제기된 정원 확충 건의를 받아 들인 데 따른 것이다. 시정어린이집 시설을 445㎡에서 588㎡로 늘리고, 야외놀이터도 162㎡에서 197㎡로 넓혔다.

이 시장은 4일 시청어린이집을 찾아 확충된 시설을 점검하고 종사자들과 아이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마

음 놓고 아이들이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정어린이집 확충이 선도모델이 돼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체까지 좋은 보육시설 운영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든든한 희망보육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41개의 보육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문재인 정부와 이용섭 시장의 보육공약인 '국공

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오는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2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 재정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시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4년간 88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안심 보육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난해까지 전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4736대를 보급하고, 전체 통학차량 994대에 잡자 어린이 확인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당 광주시당 '폭언' 광산구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광산구의회 A구의원을 징계(제명) 처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A구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가 접수돼 윤리심판원에서 심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제명을 결정했다. 또 최근 재심청구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돼 제명처분이 확정됐다.

A구의원은 당의 최고 수위 정계인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다.

A구의원은 광산구청장실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광산구의회 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서구갑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공직자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분양

# 선착순

###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